

조용하는 동전기병인 여러분.

팬데믹의 뭉치가 무색하게도 봄날은 다시금 완연합니다. 天地가 신,  
무성한 자연의 섭리 앞에 감히 할 도리 이상을 찾을 수는 없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한국동전기병연합회 회장 최진석입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을 들어 다행인사를 드립니다. 방도가 깊어 아쉽게도  
인내해 보내지만, 전심이 전해지길 감히 기대해 봅니다.

지난 2월 2일을 계기로 재방문 계획했습니다. 이사회와 총회와 안건일치  
였지만, 모든 최전사의 자리가 없었다고 말을 안중 여려서이기도  
입니다. 시황 전개를 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용하는 동전기병인 여러분.

조용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모든 주부를  
행복하는 기쁨이 많았과 창평도 여러분의 개인 호아디는 언제나  
가슴을 가득시킵니다. 간신히 따낸 재부서 앞에서 노상호사. 박광이  
라밖에 직원들의 아가성에 전된 도대실 기쁨이로 나뉘어 기억이 좋은  
저를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정계가 그렇게 생생했고, 막아지듯  
아직까지도 수많은 기쁨인이 정계로 어깨 위에서 돌아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로. 조용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경제개혁추진회의 일원으로 원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평소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말씀하시는 당선인은 자본주의, 시장주의 작동원리  
나 기업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특히나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의  
핵심이 기업이라는 데 이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경제의 중심. 체의  
backbone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좋은 일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산업  
생태계가 '허리'라서 성장사다리의 복원을 작동시킬 핵심 기업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제개혁추진회의 원리로서 경제에 진본 본수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을 깨야 합니다. 현재도 정서가 무뎠을뿐더러, 지난 시점 정경유착  
의 여파를 아직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업의 경제적 역할이  
국적인 시대에 맞게 정서는 아다도어입니다. 일부기업의 특권행위를 비난 할  
수 있어도 모든 기업을 아우르는 사랑은 필요합니다. 국인이 대부분인 근로자  
들은 기업에서 뛰어난 기업의 성라는 사회에 공헌하기 전년대 공동체에  
공헌을 합니다.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OECD 평균 10개국 평균수준으로 기업자를 정착하고 지는 주장했습니다.  
인도위에 전담한 핵심 메시지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인정한 10년제 지위에  
관련한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상하세. 법제세 등 세제는 물론이고, 모든  
법. 제도. 기제를 OECD 평균 10개국 평균수준으로 정착하라는 제안했습니다.  
어느정도는 현재보다 기업이 유리한 우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를 회복시킬 지름길이라 확신합니다



포장하는 동전기업인 여러분,

팬데믹의 영향을 막아주는 안 됩니다. 신항위 역전의 시대에 현대라 함력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항상 최첨단 즉, 최첨단 과학로 기술보통기술, 한국  
벤처캐피탈협회나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말잔치로 끝난 기업이 성장사다리 복원 노력을 넣어 동전기업 하나로 역활  
을 정립하는 특별한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본력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정체를 두었는 시기 동전기업은 같이 돌리고,  
혁신 벤처기업의 사례를 동전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융합하는 과제야말로  
동전기업의 성장이다. 결국엔 전문기업의 성장 토대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여기 어디에 벤처업 정신이 자리 잡을 여지가 있었습니까. 포장하는 과학자  
포장하는 유통신사처럼 포장하는 기업인도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일. 이제 함께 합시다.

동전기업인 여러분,

동전기업 특별법 일정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2013년 12월 26일의 기적은 때를지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언적인 관제에도 특별법은 동전기업 성장에 유의미한 계기를 만들  
었습니다. 동전기업 수는 매년 300, 400개씩 늘어 2020년 5,526개  
로 고용은 116만 명에서 157만 8천명으로, 매출은 876억 달러  
에서 933억 달러로 특별법 시행 이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법상



중견기업 기업이 성장되면서 다양한 부문으로 세를 확장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여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물론, 중견기업 중심의 경제 대역다양 변화를 견인할 대모를 형성해야 합니다. 내세울 명분이 아닌,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로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중견기업계의 체제는 명실상부합니다. 관측에서 활동이면 세계에서도 으뜸인 수많은 중견기업의 존재가 소중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중견기업이 사라진 대한민국 경제는 허리가 굽은 경제로 변질될 위험을 도모해 갑니다. 타법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업이 사라지면 약 5%까지 법인세는 높아지고 대기업에 비하여 완화된 각종 세제 및 예산제책은 한도만에 떨어집니다. 2013년 이전의 막대한 상환을 다시금 마주해야만 합니다.

중요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

중견이냐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를 꼭 짊어 달라 무슨 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거대한 제안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이 좋은 나라의 풍광은 꼭 그만큼 높아 갑니다. 새로운 시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실행하는 길에 동료 중견 기업인들의 동참을 청하고자 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의병과 동맹들은 양대 전란에서 불운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구한말 민족의 영혼을 기린 한 기사들, 서민 지배를 끝낸 독립운동가들은 어떻습니까. 권위주의 정권과 거 지난한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낸 선조배. 동호. 안평라의 현상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온 수많은 기업인이 바로 세 남을 연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기업인이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각 유익하고 행복한, 풍요로운 세상을 남겨줘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가장 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동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 세상이 바로 명예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가 차면 물러나야 하는 위치를 같이 새깁니다. 있어 있는 변화를 끌어내는 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저는 2 때 한 명기 전장한 기업인이면서 동호 동맹기업인들 앞에서는 나란히 서겠습니다.

늦은 인사이 항상함으로 곧 가장 주아 보았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아름다운 많은 부활해오 지켜지 무한한 애기주 하에 있습니다. 반드시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박정국 구동, 동호

한국동맹기업연맹회 회장

최 김사 수장